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20년 2월 3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새해 첫 제231회 임시회 개최

2월10일까지 11일간...구정 업무보고, 각종 안건 심의 진행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1월31일부터 2월 1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경자년 새해 첫 제231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강북구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백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강북구의회는 ‘현장 중심의 구민과 함께하는 강북구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례회, 특별위원회, 현장활동 뿐만 아니라 구민과의 만남을 개최하는 등 구정 현안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살피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고, 이는 모두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들의 희망과 자부심 덕분”이라며, “새해에도 우리 강북구의회는 넉넉하고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제23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처리된 뒤 박경수



지난 1월31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31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강북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해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기도 했다.

한편, 이번 제231회 임시회는 1월3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3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2020년도 구정 업무보고, 각종 안건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2월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새해 첫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동북일보 4면

강북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제231회) 개최

박경수 구청장 시정연설 및 상임위 별 구정업무 보고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1월 31일부터 2월 1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경자년 새해 첫 임시회(제231회)를 개최하여 강북구의회 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백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제231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사전접

검으로 주민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 한해도 주민의 대표이자 민의의 대변자로서 구민을 위한 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 주시고 때로는 상생의 협력자로서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집행부에게는 강북구 발전을 위한 각종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무엇보다 사회적 소외계층의 복지향상

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제23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0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했다. 한편, 이번 제231회 임시회는 1월 3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3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2020년도 구정 업무보고, 각종 안건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2월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새해 첫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북구의회, 경자년 새해 첫 임시회 개최 이백균 의장, “민원 살피는 적극 의정” 약속



▲ 강북구의회 이백균 의장이 새해 첫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지난달 31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10일까지 11일 간 일정의 경자년 새해 첫 임시회(제231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백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강북구의회는 현장 중심의 구민과 함께하는 강북구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례회, 특별위원회, 현장 활동뿐만 아니라 구민

과의 만남을 개최하는 등 구정 현안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살피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새해에도 강북구의회는 넉넉하고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1차 본회의에서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부서 별 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2020년도 전반적인 강북구의 구정에 대해 소개하는 시정연설을 가졌다.

한편, 이번 제231회 임시회는 1월 3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3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2020년도 구정 업무보고, 각종 안건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북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제231회) 개최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1월 31일부터~2월 1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경자년 새해 첫 임시회(제231회)를 개최해 강북구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백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강북구의회는 ‘현장 중심의 구민과 함께하는 강북구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례회, 특별위원회, 현장활동뿐만 아니라 구민

과의 만남을 개최하는 등 구정 현안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살피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새해에도 우리 강북구의회는 넉넉하고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제231회 서울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 건 ▲2020년도 구정업무 보고

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했다.

한편, 이번 제231회 임시회는 1월 3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3일부터~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2020년도 구정 업무보고, 각종 안건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2월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새해 첫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영일 기자